해주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불성이 여래장
성불에는 남녀 차별 없어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32호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마땅히 배워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2030세대 종교인구 감소 불교도 '발등의 불' 떨어져

한국갤럽, 1984~2014 종교 지형 보고서 발간

불교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2030세대에서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회 참석 · 기도 · 본인 신앙심 척도 역시 한국 사회 3대 종교(불교 · 가톨릭 · 개신교) 중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월 12일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종교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14년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2004년 이후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는 1984년 44%, 1989년 49%, 1997년 47%, 2004년 54%로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50%로 떨어졌다. 반면, 비종교인 비율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20~30대의 종교 이탈이 심각하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이 45%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1%로 14% 감소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 전 49%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11% 줄었다.

종교별로는 불교 22%, 개신교인 21%, 가톨릭인 7%, 비종교인 50%로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0년 간 불교 인구는 2% 감소했고, 개신교인과 가톨릭인은 변화가 없었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으나 가톨릭은 3040세대의 비율이 전체 신자의 20~30%에 달해 안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생활 측면에서도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낮은 신앙심과 참여도를 보여줬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 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30년 종교 지형 살펴보니
불교 2004년 이후 감소
젊은층 이탈 · 고령화 원인
가톨릭 20 · 30대 신도 집중

불교 의미 두는 佛子 줄어
"종교인구 축소" 장기 전망

하지만 가톨릭을 제외한 불교와 개신교는 지난 30년간 '신앙심이 깊다' 고 말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한 번 기도를 하는가' 를 묻는 질문에 불교는 8%만이 '그렇다' 고 말했으며, 개신교는 52%가 가톨릭은 30%가 1일 1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경전을 읽는 신도 역시 불교가 가장 낮았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경전을 읽는가' 라는 질문에 불교는 11%만이 긍정했으나 개신교는 56%가 경전을 읽고 있었다.

'개인 생활 중 종교의 중요도' 에서도 불교는 지난 30년 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불교가 개인 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불교인은 1984년 88%였던 것에 반해 1989년 78% 1997년 77%, 2004년 68%, 2014년 59%로 30년간 30% 가까이 감소했다.

1989년부터 조사 보고서 분석에 참여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2030세대의 탈(脫) 종교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조사에서는 불교의 약진, 개신교의 정체, 천주교의 감소로 요약됐지만 2014년 현재 종교 인구 지형은 불교의 감소,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 며 "종교 인구 측면에서는 현재 불교인의 증감이 중요한 변수" 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2.5%, 신뢰 수준은 95%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연령별 종교인 분포 1984-2014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불교인	10	10	15	10	17	15	21	11	28	21	27	21	29	30	35	32				35
개신교인	20	19	23	18	19	22	23	20	14	22	21	20	13	18	19	23				24
천주교인	5	6	6	3	7	8	6	7	5	8	9	9	6	7	6	5				8
비종교인	64	64	55	69	55	53	51	62	51	47	43	49	47	44	38	40				32

*109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60세 이상 별도 구분

"나라 지키며 전법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1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육사71기 졸업 및 임관축하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 최용림 前국군불교총신도회장, 군승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생도 76명은 졸업에 앞서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로 정법을 수호하며 신심을 굳게 세워 항마의 보살이 될 것"이라며 "국토 어느 곳을 가거나 전법과 정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最古금속활자 '증도가자' 연구결과 공개

'직지' 활자보다 138년 앞서… 경북대 산학협력단 조사

〈직지〉에 쓰인 금속활자보다 138년 앞선 〈증도가자〉의 진위를 밝히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남권희)는 최근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증도가자〉 109개 활자에서 추출한 먹의 방사성연대 측정 결과 15개 활자가 1033년에서 1155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용역을 받아 〈증도가자〉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해 왔다.

〈증도가자〉는 고려가 1101년부터 국자감에서 간행한 서적에 사용된 금속활자로 알려져있다. 〈증도가자〉는 발표 당시부터 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0년 9월 2일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서울 다보성미술관이 소장한 고활자 12점이 번각

11세기 먹, 활자서 추출해 검증
문화재청 보물지정 절차 돌입

다보성박물관 소장 〈증도가자〉

본인 〈증도가〉 속의 글자와 비슷하다" 며 그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다보성미술관(관장 김종춘)의 소장활자 100여 점을 추가로 공개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출처 및 소장경로,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며 지정이 연기 됐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전문가 32명이 참여해 1년간 연구 끝에 증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증도가자〉의 최초 공개자와 동일인이어서 조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보물지정 절차를 밟기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대형불화 정밀조사 시행된다

문화재청, 성보문화재硏과 10년간 진행

그동안 의식용 불화라는 특수성으로 연구가 제한되고,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불화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조사가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함께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중요 대형불화(괘불탱, 掛佛幀) 54점과 관련 유물 207건 431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대형불화는 사찰의 중요전각에 봉안되거나 야외의식을 위해 조성된 3m 이상의 불화를 말한다.

조사는 인문학적 조사,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 보존과학적 조사로 구성된다. △인문학적 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크기와 특징 등 문헌 연구자료를 수집 · 분석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 △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는 2D(2차원) · 3D(3차원) 스캔을 통해 문화재의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보존과학적 조사는 재질과 안료분석, 손상조사, 비파괴 안전진단을 위해 적외선 · 현미경 ·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 모니터링 등으로 실시된다.

2015년 조사는 보물 제1350호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등 경남 · 경북의 중요 괘불탱 4점과 괘불탱 관련 유물 112건 336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32호 INDEX

시방세계 5
동산반야회
제1회 염불스테이

화엄만다라 16 · 17
최용춘
前 교불련 회장

독자여러분, 따뜻하고 화목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불교대사림』 제15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모든 功德을 伽山智冠大宗師 大覺靈前에 그리고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饒益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 하신 가산지관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후 1145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대중 분향후 올림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